

3. 신발 접착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 여 **나이** 45세 **직종** 접착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이○○는 1992년 신발 제조업체인 I산업에 입사하여 신발 밑창과 갑피를 접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4년 2월 D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이○○는 입사 후 갑피와 신발 밑창을 접착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지만, 약 5년 전부터는 반장으로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걸근한 공정이나 바쁜 공정에서도 작업하였다. 작업장 1층에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등 10여 종 원료를 배합한 후 roller로 압착하여 판 형태로 만든 다음 프레스로 신발 밑창을 찍어내면(성형 공정) 2층에서 갑피를 접착하여 완성품을 제조한다. 케미인 경우 갑피에 라텍스라고 하는 액체 천연고무 접착제를 발라 중창과 붙인 다음, 우레탄계 접착제의 선처리제를 바른 후 우레탄계 접착제를 발라 밑창과 붙인다. 포화는 갑피에 라텍스를 발라 중창과 붙인 후, 또 다른 접착제를 발라 밑창과 붙인다. 이후 검사, 세척, 포장 등 작업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한다. 갑피와 접착된 케미 밑창은 갑피와 접착하기 전에 2층에서 사상 작업을 한다.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약 10년 정도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.

3. 의학적 소견: 이○○는 2003년 9월부터 허리와 목이 아파 치료받던 중 2004년 1월 31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상 좌하엽에서 직경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. 2004년 2월 3일부터 D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실시한 세침흡인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되었다.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상 양폐의 혈행성 전이소견,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두엽의 0.8 cm 크기 종양, 골주사검사에서 다발성 전이소견 등도 확인되어 양쪽 폐, 뇌 및 뼈에 전이된 폐암(선암)으로 진단되었다. 흡연력은 없었다.

4. 결론: 이○○의 폐암은

- ① 원발성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,
- ② 과거 약 22년간 신발 밑창과 갑피를 접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무(천연 및 합성) 및 접착제 등에 노출되었으나,
- ③ 이들 물질들에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신발 제조업 역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이 아니어서,

과거 총 22년 간 종사한 신발 접착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